

‘ACC 10년’ 문화플랫폼 위상 정립·지역 밀착은 글썽

지역·기관 정체성 깃든 킬러콘텐츠 마련 과제

옛 전남도청 복원…‘운영 주체 논의’ 본격화

내년 민주평화교류원 개관 5개월 운영 관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25일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의 핵심 시설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복합문화공간인 ACC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목표 아래 개관 이후 전시와 공연, 교육, 창·제작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문화예술을 경계없이 다루고, 모든 콘텐츠의 주변에서 아시아성을 두고 있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창·제작에 방점을 둔 기관인 만큼 전체 콘텐츠

2162건 중 80% 가량이 창·제작 콘텐츠로, 실험성은 다양한 시도를 견인해왔다. 대중성도 잡기 위해 ‘ACC 클래식’, ‘뉴욕의 거장들: 잭슨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역시 선보여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생산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있는 예술인 양성에 기여해왔다. 특히 융복합 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ACC 미래상’ 제정은 창조적 예술인을 발굴,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ACC는 단일 전시로 20만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디어 바바노냐’와 ‘이음 지음’ 전시는 20만명 이상이, ‘사유정원’, ‘애호가 편지’ 등에는 10만명이, ‘이건희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은 75일간 9만명 이상이 각각 다녀갔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4개 권역 문화교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각 권역별로 전통음악과 문학,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며, 문화 분야 공적개발 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과 행사를 펼칠 수 있는 마당으로서 시민에 쉽게 선사하는 한편, 이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관 10년이 된 해까지 킬러 콘텐츠가 부재한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에 조성한 취지에 맞게 민주·인권·평화라는 ‘광

주 정신’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박씨부인전을 모티브로 한 여성이어서 액션 판타지 ‘REX’(렉스)를 킬러 콘텐츠로 내세웠으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음악극 ‘드라곤 킹’의 수록곡 ‘범 내려 온다’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고, 최근 홍보가를 원작으로 한 창작극 ‘제비노정기: 시러령시러령’ 역시 흥행에 성공은 했지만 전당의 킬러 콘텐츠인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른다.

또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 아시아적 콘텐츠는 풍부하게 다뤄왔으나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 및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영성-우리 모든 것들의 이야기’, ‘우제길의 빛’, ‘이이남의 산수극장’ 등 지역 정체성을 탐구하고 미술계와 협력하는 전시를 선보여왔지만 미술이라는 장르에 국한, ACC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타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차별

점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복원 중인 옛 전남도청 공간 활용 역시 과제로 떠오른다. ACC를 구성하는 5개 시설 가운데 민주주의 상징 공간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가 이달 말 완료되면 내년 5월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예술관계자는 “ACC는 시민들이 문화중심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며 “시민들이 사랑받는 문화예술기관이자 독자적인 콘텐츠로 전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전당장은 “문화전당은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예술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오지호미술상’ 본상·특별상 시상식 열린다

본상에 한희원·특별상에 박성완

27일 오후 7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지난해 수상자 방정아 전시 진행

한국 서양화단의 선구자 오지호(1905~1982)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2년 광주시가 제정한 올해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 시상식이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 2명의 시상식과 2024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전 ‘방정아: 묻다. 묻다’ 개막식을 27일 오후 7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5, 6전시실에서 진행한다

2025년 오지호미술상 시상식에서는 본상 수상자 한희원(70·광주)과 특별상 수상자 박성완(41·광주)작가에게 광주시장 상패가 수여된다. 차기년도에는 본상 수상자에게 10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창작활동비가 지원되며, 본



한희원 작가



박성완 작가

상 수상자에게는 개인전 개최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5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자인 한희원 작가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시작으로 죽음·삶·시간 등의 화두에 천착해 서정성과 시적 감수성을 담은 회화 작업을 전개해왔으며, ‘양립골목비엔날레’ 추진 등 지역의 역사성과 인문학적 가치 보존에 힘써왔다. 2024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수상자인 박성완 작가는 민주화 운동부터 최근 탄핵 시위까지 순

수 회화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시대 참여적 시선을 견지해온 점에서 선정됐다.

이어 2024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작가를 조명하는 ‘방정아: 묻다. 묻다’ 개막식도 열린다. 방정아(58·부산) 작가는 홍익대(1991)와 동서대학교 IT & 영상전문대학원 영상디자인과(2009)를 졸업하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해왔다. 작가는 유희와 솔직함을 겸비한 시각 언어로 자신만의 리얼리즘을 구축하며 미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 오지호미술상 심사위원회는 작가가 형상미술의 문맥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 젠더 문제 등 동시대 핵심 이슈를 다루며 회화의 독자성을 제시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작가는 2002년 하정웅청년작가전 ‘2002 빛’전, 2021년 올해의 작가상 후보(국립현대미술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3년 구본주예술상(구본주기념사업회)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개막, 2026년 1월 18일까지 미술관 본관 5, 6 전시관에서 열리는 ‘방정아: 묻다. 묻

다’전은 방정아의 예술과 오지호미술상이 지향하는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주목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43점을 선보여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존에 주목한 ‘방정아 리얼리즘’을 살펴본다. 전시는 사회, 여성, 생태, 일상 등 작가 작업의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신작 ‘묻다. 묻다’(2025)는 방정아 작가의 리얼리즘이 집약된 작업이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창작지원금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역사를 질문하기(To Ask)와 땅에 묻기(To Bury)라는 ‘묻다’의 이중 의미를 담았다. 해방기 이념 대립 속에서 광양 백운산에 머물며 시대 현실을 마주한 오지호 선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미술도구와 그 시절의 기억을 땅에 묻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예술가는 어떻게 시대와 마주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2025년 7월 담사와 백운산 한재 퍼포먼스를 거쳐 회화 2점과 영상 1점으로 완성된 이 러시지 기반 프로젝트는 오지호 선생의 경험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며, 방정아 작가가 천착해 온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존이라는 주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29일까지 곡성·화순·강진 등서

(제)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올해 마지막 ‘구석구석 문화배달-문화요일’을 이달 마지막 주 도내 곳곳에서 선보인다.

연말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이어온 ‘문화요일’ 여정의 마무리로, 도민들이 문화 속에서 따뜻한 휴식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달 문화요일은 24일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보이는 ‘식후 땀’(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26일에는 곡성(문화공간 창)의 ‘문화로운 극장’이 깊어가는 가을밤을 밝히며, 27일 화순(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전시 ‘검은 빛 검은 숲’이 펼쳐진다. 28~29일에는 강진(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힐링다도 休’가 차분한 휴식을 선사하고, 28일 보성(문화공간 지구력)의 ‘두렵두렵 마을잔치’와 영광(깨끗한인연 청원)의 ‘굿이브닝 모두의 숲’이 더해져 전남 곳곳에 따뜻한 문화의 온기를 채운다. 마지막 주말인 29일 해남(해남문화관광재단)의 ‘걸어서 10분 여가’와 곡성의 ‘문화로운 산책로’를 끝으로 11월 문화요일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화순에서는 폐광·탄광의 기억을 예술로 재해석한 전시 ‘검은 빛, 검은 숲’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어둠 속에도 빛이 피어나는 지역의 서사를 예술로 담아내며 깊은 여운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구석구석 문화배달-문화요일’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도시·산촌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으로, 도민 일상에 문화적 숨결을 채워왔다. 월요일의 ‘힐요일’, 화요일의 ‘여행요일’, 수요일의 ‘별요일’, 목요일의 ‘섬요일’ 등 요일 테마형 프로그램은 전남만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획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1년 내내 전남 곳곳에서 문화를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구석구석 문화배달’이 따뜻하게 완주할 수 있었다”며 “11월 마지막 일경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전남의 문화가 도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환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사업은 연말 성과정리 및 공유화와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장소, 주제 등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영화 감독 돼서 작품 뽐내요”…민주주의·예술 감수성 확장

영화연상인연대·실천교사 ‘제5회 무등영화제’ 성료

시교육·성장 등 11편 상영…초등 감독·배우 만남도

(사)광주영화연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와 광주실천교사(회장 이해중)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무등영화제’가 지난 22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무등영화제 타이틀은 ‘아이들이 만드는 영화,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으로 광주 관내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든 총 11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올해의 상영작들은 기후위기와 학교폭력, AI 교육, 스마트폰 중독, 교실 속 소외와 연대, 장애 학생의 삶, 성장과 우정,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모험 등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문제들을 영화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다큐멘터리적 구성부터 SF, 미스터리, 로맨스, 패러디, 코믹까지 다양한 장르가 등장해 그 자체로 ‘작은 영

화제’의 품격을 갖췄다.

올해 상영된 작품은 광주중앙초의 과거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 ‘시간의 노트’, 학교 속 비밀 조직을 그린 ‘스쿨 데몬 헌터스’, 교사 대신 AI가 교실을 지배하는 시대를 묻는 ‘A.I.에겐, 장애 학생의 자리 찾기를 다룬 ‘밤잠하는 우리’, 스몸비(스마트폰 좀비)가 된 반 친구들을 구하는 이야기 ‘스몸비’, 기후위기와 일상의 실천을 고민하게 하는 ‘끓는 물 속 개구리’ 등이다.

‘타임머신을 통해 고백을 반복하는 남학생’, ‘길에서 발견한 행운 인형’, ‘완벽하지만 공감 없는 AI 교사’, ‘방구의 범인을 찾아 나선 시각장애 학급’, ‘역암적 임시현실에서 서로를 돌보며 밖으로 걸어 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사)광주영화연상인연대와 광주실천교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무등영화제’가 지난 22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뉜 진행된 영화제에서 각 색인이 끝나고 초등학생 감독과 배우가 등장해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의 지원작과 광주 학교 현장 곳곳에서 만든 작

품들이 극장을 가득 채웠다.

이상훈 이사장과 정일승 무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광주의 미래세대들에게 공동 창작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민주주의와 예술적 감수성을 확장시켜주는 매우 훌륭한 교과서”라고 전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